

30년차 톱배우 '역대급 홍보'에 쏟아진 박수

각종 예능부터 유튜브·야구장까지 함께 다니며 영화 홍보 '광폭 행보' SNS에 '코카인 댄스' 올려 화제도 루틴했던 영화 홍보에 신선한 자극 소속사 "더 출연 못해 아쉬워했다"

톱스타 이정재와 정우성이 연일 '광폭'의 행보를 이어가며 시선을 끌고 있다. 함께 주연한 영화 '헌트'의 10일 개봉을 앞두고 빠빠한 홍보 일정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신들이 이끄는 제작사 아티스트스튜디오의 영화인 데다 이정재가 연출에까지 나선 작품이라는 점에서 23년의 우정을 쌓아온 두 사람에게 더욱 남다른 의미와 책임감을 안겨준다는 시선이 나온다. 이정재와 정우성은 1980년대 안기부를 배경으로 각각 해외팀과 국내팀 소속 요원 역을 맡아 조직에 숨어든 첩자를 색출하는 이야기를 그렸다.

●유튜브·방송·오프라인 행사까지...

이정재와 정우성은 최근 '문명특급', '미노이의 요리조리', '픽시드(Pixid)', '오디지(odg) 등 10~30대 누리꾼을 겨냥한 유튜브 채널부터 KBS 2TV '연중 라이브', MBC '전지적 참견 시점SBS' '집사부일체', JTBC '방구석 1열' 등 지상파와 종편 등 다양한 방송 채널의 예능프로그램에 동반 출연하며 '헌트'를 홍보하고 있다. 이정재는 6일 SBS '8뉴스'에도 출연했다.

5일에는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펼쳐진 프로야구 LG 트윈스와 키움 히어로즈의 경기에서 시구·시타자로 마운드와 타석에 각각 섰다. 또 '오징어게임'



배우 정우성(큰 사진 왼쪽)과 이정재가 영화 '헌트'의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5일에는 2022 KBO 리그 키움 히어로즈 대 LG 트윈스 경기에서 시구·시타자로 나섰다. SBS '집사부일체' (작은 사진) 등에도 함께 출연했다. 사진제공 | 메가박스중앙(주)플러스엠·SBS

황동혁·'신과함께' 김용화 감독 등과 함께 GV(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무대에도 적극 나섰다. 두 사람은 2일 밤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

점에서 동료 배우 등을 초청하는 VIP 사회를 열고 직접 모든 손님을 맞기도 했다.

'헌트'에 함께 출연한 허성태와 함께



영상으로도 온라인을 달렸다. 세 사람은 허성태가 올해 초 'SNL 코리아 시즌2'에서 선보여 한 차례 화제를 모았던 일명 '코카인 댄스'를 함께 추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6일 소속사 SNS를 통해 공개했다.

●"이정재·정우성이 원한 적극적 소통"

대체로 영화 개봉을 앞둔 홍보프로모션 활동은 최종적으로 배우들의 의사 확인을 거쳐 본격 진행된다. 이정재와 정우성은 '헌트'의 투자배급사인 메가박스 중앙(주)플러스엠(메가박스)의 관련 제안을 거의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가박스 한세진 마케팅팀장은 9일 "두 사람이 더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면서 "홍보프로모션 활동에 참여하는 배우로서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들의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 관계자는 "미디어 및 극장의 달라진 환경을 이해한 두 배우가 함께 홍보 통로를 찾았다. 오히려 자신들이 출연하기를 희망한 유튜브 채널과 프로그램이 더 있었지만 일정 문제로 성사되지 못해 아쉬워했다"고 귀띔했다. 이어 '오징어 게임'으로 미국 TV상인 에미상 후보에 오른 이정재는 9월 시상식을 앞두고 관련 홍보프로모션 활동을 현지 시간에 맞춰 새벽에 진행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우영우' 연출 유인식 PD '남만닥터 3' 제작 초입기

한석규 등 주요 출연자들과 촬영 시기 논의 '우영우' 잇는 제2의 글로벌 히트 드라마 기대



유인식 PD

시즌1,2 모두 27%대(닐슨코리아)의 기록적인 시청률을 남긴 SBS 드라마 '남만닥터 김사부'가 최근 시즌3 제작 초입기에 들어갔다.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우영우)로 세계무대에서 저력을 발휘한 연출자 유인식 PD의 신작이라는 점에서 또 한 번 '글로벌 히트 드라마'가 탄생할 것이라 기대도 방송사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9일 방송가에 따르면 제작진은 배우 한석규, 안효섭, 이성경 등 시즌2의 주요 출연자들과 대략적인 촬영 시기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차기작 일정을 마무리하는 시점인 11월 이후 본격적인 촬영을 시작할 전망이다. 최근 스태프를 총원하며 제작 준비에 착수했다.

유인식 PD가 최근 '우영우'의 촬영을 모두 마치면서 방송 준비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유 PD와 근분을 쓴 강은경 작가는 2020년 2월 시즌2를 종영한 직후부터 다음 시즌을 구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석규 등 시즌2에 출연한 대부분의 배우들도 시리즈에 대한 애정이 깊어 일찌감치 시즌3에 대한 참여 의지를 드러내었다. 현재 연말 시즌3 촬영을 염두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남만닥터 김사부'는 지방의 종합병원인 돌담병원에 근무하는 외과과장 김사부(한석규)를 중심으로 의료진과 환자들의 이야기를 담아 큰 인기를 끌었다. 시즌1에서는 유연석과 서현진, 시즌2에서는 안효섭과 이성경이 김사부의 제자로서 성장하는 과정을 그렸다. 다양한 외상 환자들을 살려내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이들의 모습이 시청자의 공감을 잡아끌면서 히트 시리즈로 자리매김했다.

최근에는 18일 '우영우'가 종영한 후 유 PD의 향후 행보가 호기심의 대상이 되면서 시청자들의 관심사에 올랐다. 특히 두 드라마가 다양한 실제 사례를 녹여 사회적인 메시지를 강조한 점 등 공통점이 많아 일부 시청자 사이에서는 '남만닥터 김사부' 시즌3의 시청률 흥행을 기대하는 시선도 쏟아지고 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팝의 요정' 올리비아 뉴턴 존, 30년 암 투병 끝내고 별이 되다

1978년 영화 '그리스'로 스타덤 '피지컬' '재너두' 등 수많은 히트곡 그래미상 4차례 받은 '만인의 연인'



올리비아 뉴턴 존

할리우드 영화 '그리스'의 올리비아 뉴턴 존이 9일(한국시간) 세상을 떠났다. 향년 73세.

그의 남편인 존 이스털링은 이날 뉴턴 존의 SNS를 통해 "올리비아가 오늘 아침 캘리포니아 남부에 있는 목장에서 가족들과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원히

영국에서 태어난 뉴턴 존은 독일 태생 물리학자이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막

스 보른의 손녀로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호주로 건너가 생활했다.

세계적인 스타로 자리매김한 건 1978년 존 트라볼타와 함께 출연한 뮤지컬 영화 '그리스'를 통해서다. 당시 30세였던 뉴턴 존은 고등학교 샌디 역으로 출연해 화제를 모았고, 이후 '만인의 연인'으로 불렸다.

트라볼타는 이날 자신의 SNS에 뉴턴 존의 젊은 시절 사진을 공개하며 "당신 덕분에 우리의 삶이 더 좋아졌다. 당신이 준 충격은 믿기 어렵다. 당신을 사랑한다"는 글을 올리며 애도했다.

뉴턴 존은 네 차례나 그래미상을 받은 가수로도 유명하다. 1971년 밥 딜런의 '이프 나트 포유'(If Not for You)를 시작으로 '렛 미 비 데어'(Let me be there), '아이 어니스틀리 러브 유'(I honestly love you), '해브 유 네버 빈 멜로우'(Have you never been mellow), '피지컬'(Physical), '재너두'(Xanadu) 등 히트곡을 내놓았다. 특히 1981년 발표한 '피지컬'은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100'에서 10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연예뉴스 HOT 3

서초·강남일대 침수에 방송가·스타들도 혼란

수도권 일대에 100~300mm 수준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서울 서초·강남 일대가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방송가와 스타들도 혼란을 빚었다. 이종격투기 출신 방송인 김동현과 스포츠트레이너 양치승은 9일 SNS를 통해 체육관 침수 피해 사실을 밝히며 복귀 중인 상황을 공개했다. 매일 오전 11시 라디오 SBS 파워FM '씨네타운'을 진행 중인 박하선은 폭우로 인한 도로 정체로 인해 생방송에 지각해 청취자에게 사과했다. 이외에도 개그우먼 김숙, 가수 미나 등이 SNS에 폭우로 침수된 도로를 촬영해 공개하며 팬들에게 안전을 당부했다.

영화 '미니언즈2' 개봉 21일만에 200만 돌파

애니메이션 영화 '미니언즈2'가 개봉 21일 만에 200만 관객을 돌파했다. 9일 영화진흥위원회와 유니버설픽처스 등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개봉한 '미니언즈2'의 누적 관객수는 이날 오전 200만 명을 넘겼다. 올해 개봉 영화 중 200만 명 이상이 본 애니메이션 영화는 '미니언즈2'가 유일하다. 미국에서만 3억3457만 달러(한화 약 4358억 원)를 벌여 이는 등 전 세계에서 흥행하고 있다.

'콘서트 갈등' 김희재, 자선공연 개최 논란

콘서트로 갈등을 빚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희재가 자선 공연을 열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9일 김희재의 소속사 스카이에엔엠은 공식 팬카페를 통해 15일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에서 팬들과 봉사단체 관계자들을 위한 무료 공연을 연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희재의 전곡 투어를 기획한 모코엔트는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무료 공연 개최는 적절치 않다"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모범가족' 서도 조직원...박희순 "또 어른 섹시? 어른은 가능"

'마이네임' 섹시한 보스로 인기 "이번엔 메마르고 건조한 남자"

박희순(52)이 돌아왔다. 지난해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마이네임'을 통해 섹시하고 매력적인 조직 보스 역을 맡고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그가 12일 공개하는 넷플릭스 시리즈 '모범가족'으로 인기를 이어갈 전망이다. '모범가족'은 제목과 달리 파산과 이혼 위기에 놓인 한 가정이 마약 조직과 얽히며 벌어지는 범죄 스릴러 작품으로 박희순은 극중 마약 조직 2인자 마광철을 연기한다. 전작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캐릭터를 맡고, 강한 카리스마를 또다시 선보인다.

9일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박희순은 전작과

"같은 직업군"을 연기하는 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던 게 사실"이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김진우 감독님을 만나고 모든 게 해소가 됐다. '다르게 보일 수 있다. 걱정하지 말라'라며 '근거 없는 자신감'을 내보이시기에 '혹'해서 하게 됐다"며 웃었다.

'조직원'이라는 공통점은 존재하지만 캐릭터의 성격과 놓인 상황 모두 정반대 지점에 놓여있다는 게 김 감독과 박희순의 설명이다. 거대 폭력 조직을 완벽히 장악한 1인자였던 전작과 달리, 이번 작품에서 마광철은 온몸을 바쳤던 조직의 1인자에게 내쳐질 위기에 놓인 위태로운 2인자다. 박희순은 "단 한 번도 가족을 가져 본 적이 없는 고아 출신인 인물로 가족에 대한 동경으로 오랜 시간 가족을 조직으로 믿고 살았던 인물"이라며 "'마이네임' 속 '무진'

이 뜨거운 남자였다면 '모범가족'의 '광철'은 메마르고 건조한 남자"라고 말했다.

김 감독은 "'마이네임'에선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완성된 악인이었다면 우리 작품에서 박희순 씨는 내면 결집에 기인한 악인이라고 할 수 있다. 내부에서 기인한 악이 외부로 어떻게 표출되는지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기대감을 더했다.

"다른 색깔"의 캐릭터이지만 박희순만의 매력은 오롯이 가져왔다는 게 함께 연기한 배우들은 설명한다. 박희순은 "'마이네임'에서 보여줬던 '어른 섹시'를 또 한번 보여줄 수 있냐"는 질문에 "'어른 섹시'까지는 모르겠지만 '어른' 정도는 보여드리겠다"며 속스러워하면서도 함께 연기한 정우는 "굉장히 섹시하다. 함께 연기를 하면서도 계속 섹시함을 느꼈다. '마이네임'



배우 박희순이 9일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에서 열린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모범가족' 제작발표회 무대에 올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 | 넷플릭스

과는 또 다른 박희순 선배님의 섹시함이 보일 수 있을 것"이라며 장담했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편집 | 최혜경 기자 hk7048@donga.com